

청렴결백한 선비과학자, 남병길

정찬주 <소설가>

김정희의 제자

남병길(南秉吉)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해주목판관을 지낸 남구순(南久淳)이었다.

본관은 의령(宜靈).

남병길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한테서 학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특히 추사 김정희는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 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형인 병철(秉哲)도 추사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병길의 서예 솜씨는 스승인 추사를 놀라게 했으며, 추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던 금석학연구(金石學研究)와 고종학 등을 저술 활동을 통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고 소개하였다.

또한 병길은 종교조부 남공철(南公轍)이 남긴 학문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영의정을 지낸 남공철은 당대의 문장가로 그 명성이 중국에 까지 자자했다. 그는 경전과 중국의 고전들을 모두 통달한 학자로서 시(詩), 서(書), 화(畫)는 물론, 활자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또한 남공철은 그가 발명한 전사자(全史字)라고 불리는 구리활자의 주조술을 병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우의정까지 지낸 박규수(朴珪壽)와 민태호(閔台鎬), 민규호 등은 절친했던 사람들로써 추사의 학문을 함께 이어받았다.

청렴결백한 청백리

남병길은 산학(算學)에 뛰어난 학자였고, 천문학도 그를 따를 자가 별로 없었다.

또한 부모에게 지극한 효도를 다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신의를 지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그는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자의 편에서서 일을 처리하였고, 아침과 불의를 무엇보다도 싫어하였다.

32세의 나이로 평안남도 성천의 부사(符使)로 있을 무렵 그해 극심한 가뭄 끝에 큰 흉년을 맞고 있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민심이 흉흉해진 틈을 타 도둑들마저 들끓어서 초저녁만 되어도 마음놓고 돌아다닐 수 없었다.

새로 부임한 남병길은 먼저 흉흉해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관의 기강을 바로 잡기로 했다.

남병길은 부사로서 명을 내렸다.

“상부기관에서 곡식을 상납하라는 지시가 있어도 내 허락없이 는 응하지 말라.”
“큰일 납니다. 사또”
“내가 책임질 터이니 나의 명만 따르도록 하라.”

“정말 괜찮겠습니까요. 사또?”

“허허.”

“.....”

“곡식창고나 굳게 지키고 성천 고을 주민들에게만 구호하렸다. 성천 고을에서 난 곡식이니 성천 사람들이 우선 먹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고을 사람들은 남병길의 선정 덕분에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두고 두고 남병길을 흠모하였다.

또 이러한 일화 한토막도 전해지고 있다.

성천 고을은 미인이 많기로 유명했다. 특히 누대라는 기생은 한양까지 소문이 난 절세의 미인이었다.

기녀들은 서로 남병길의 눈에 들려고 하였다. 젊은 나이로 부임한 부사가 마음에 끌렸던 것이다.

아름다운 누대도 가슴이 설레었다. 그래서 그녀는 몇 번이나 남병길을 만나려고 시도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병길은 누대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황해도 관찰사로 영전될 때까지 한번도 기방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맡겨진 직분을 정성에 다해 임하였고, 밤 시간에는 학문의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서도 유명했다.

형 병철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고, 병길이 병조참의로 있을 때였다. 아버님의 병환이 심해지자, 두 형제는 관직을 사임하고 아버님 곁으로 달려갔다.

부친상을 당하고서는 3년 동안 꼬박 묘소를 지키기도 하였다.

이때 남병길은 산학과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하였다. 아버님 묘소를 지키면서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두 형제가 저술한 책이 무려 30여 종류나 되었다.

천문학과 인쇄술의 발달에 기여

남병길은 40세의 나이로 관상감제조를 맡았다. 춘추관사, 의금부사직을 겸직하면서 그랬다.

그의 능력은 관상감제조를 맡으면서 비범함을 드러냈다. 그는 산학과 천문학에 달통하여 3백여명의 관원들로부터 한결같은 존경을 받았다.

당시의 관원들은 산학이나 천문학에 있어 중국의 것을 더 숭상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남병길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자, 내 계산을 보시오.”

그러나 중국의 계산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남병길의 주장에 쉽사리 고개를 숙일 리 없었다.

“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계산법 만으로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요.”

“자, 나의 계산법을 보시오. 일식이나 월식 등 천체운행에 관련된 시각의 계산을 정확히 해낼테니 말이요.”

결국 남병길은 그들을 설득시키곤 하였다. 서양 학문의 정확성을 인식시켜 주곤 하였던 것이다.





한편, 남병길은 '시헌기요(時憲紀要)'와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를 편찬하여 갑과시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었다. 중국 '춘추전'의 일식을 소급 계산하여 전인(前人)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밝혔고, 산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서를 편찬하여 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시헌기요'는 천문학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시헌기요'는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태음력의 구법에 태양력의 원리를 복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만든 천문역법서인 것이다.

중국 명나라 때, 독일의 선교사

탕약망이 만든 신헌력(新憲歷)을 우리나라의 김 육(金堉)이 연경에 갔다가 여러가지 다른 서적과 함께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역법은 10년 동안 이순지 등에 의해서 그 용법이 연구되어 효종 때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순지 역법이 잘 맞지 않고 허술한 구석이 많아 남병길이 서양의 것과 대조하면서 손을 대었던 것이다.

만향재(晩香齋)는 남병길이 학문을 탐구하던 서재의 이름이다. 남병길은 남공필이 발명한 전사자 활자판을 개량하여 자신의 서재명을 본따서 '만향재활자판'이라고 이름붙였다. 그러니까 남공필의 인쇄술에다 자신의 서예 솜씨를 합한 활자체였다.

만향재 활자판으로써 남병길은

스승인 추사의 유고집을 인쇄하였다.

그때 그는 추사가 생각나서 스승의 책 위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만향재 활자판이 만들어진 이 모든 공덕은 어른의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 경사스런 날 눈물을 비치다니. 나이들었군."

"아닐쎄. 내 스스로 이룩한 것은 하나도 없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빌렸을 뿐이네."

남병길은 임금의 명을 받아 책을 인쇄하기도 하였다.

'대전회동'이나 '6전조례', '통관통고'등의 서적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뭇튼 남병길은 인쇄술의 공적을 인정받아 승정대부에 오르는 등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어려서는 교동에서 자라고, 말년에는 안현(서울 안국동)에서 살았다는 남병길. 산학과 천문학, 그리고 인쇄술을 연구하고 선정을 베푼 강직한 선비였던 남병길. 그는 50세의 가까운 나이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사 속에서 이처럼 많은 일을 해냈던 선비도 드물 것이다. ☹